



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선행

광주시 서구 자원봉사자들이 16일 오전 양동초등학교에서 주민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서구와 지역 기관들은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안과·한방·내과진료, 이·미용서비스 등 통합자원봉사를 실시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전남대 마지막 직선 총장 선거

윤택림·지병문·오희균 '혼전'

출신고교·소속 단과대별 표 쏠림 여전

전남대학교 제19대 총장 재선거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17일 선거 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을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치러지는 재선거인 탓에, 각 후보들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관세 분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각 후보들은 일반적으로 선거기간 운영했던 선거캠프나 조직을 아예 구성하지 않는 등 극도로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다. 윤택림(54·의학과)·지병문(59·정치외교학과)·오희균(53·치의학전문대학원) 후보(기호순) 등 출마자들은 해박과 인맥, 대학경영 능력 등을 내세우며 저마다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전남대 총장

선거 결과를 좌우했던 주요 요인은 유권자들이 많은 출신 고교와 소속 단과대이다. 여기에 후보 개인의 성품과 경영능력, 안티 세력 유무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단과대 중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공대와 의대의 표심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소속인 윤택림 후보가 소속 단과대에서의 세확산에 주력해온 가운데 지병문 후보는 공대에서 의대까지 광범위

하게 표발을 갈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희균 후보 역시 의대 유권자와 공대 선거인단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일고 출신인 지병문 후보와 광주고를 나온 오희균 후보는 서로 상대 후보 고교 출신 선거인단 공략에 주력해 왔다는 게 대학 주변의 전언이다. 동신고 출신인 윤택림 후보는 광주고와 광주일고 출신에 비해 결집력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체 평

가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최초의 비(非) 광고·일고 출신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총장 선거에서 다득표 3위를 한 윤택림 후보, 국회의원 경력을 내세운 지병문 후보는 인지도에서 우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오희균 후보는 검찰 수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선거 자체가 무위로 돌아갔던 지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선명성과 신선한 이미지를 장점으로 강조하며 득표전을 벌였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윤택림

지병문

오희균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and a 7-day weather outlook.

광주·전남 비 온 뒤 춥다

17일 광주·전남지역에는 한 차례 빗방울이 떨어진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은 5mm 내외로 예상되며, 오후에는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고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층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틀만에 법정 변론 준비하라고?”

대형마트 휴업중지가처분 촉박 일정에 구청들 불만

의무휴업 시행을 둘러싼 대형마트와 자치단체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등이 추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변론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돼 논란이다. 대형마트측에 대응해 변론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자치구의 공무원들은 이를 위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소송 준비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가 최근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한 소송 제기 내용을 12일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어 법원은 구청에 15일자 변론 기일 통지서를 통해 1차 심리 날짜 및 시간을 17일로 고지했다. 이에 따라 시와 구청은 이틀도 채 남지 않은 심리를 위해 답변서를 만드는 등 하루종일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이번 소송에 관계하고 있는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15일 통보하고 48시간만에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집행정지 소송의 특성상 최대한 시급하게 봐도 무리한 일정”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법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대표는 “소송의 성격상 본안과 별다른 게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해야 하는데 급하게 처리한 면이 있다”며 “법원이 강자의 편에 서서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법원측은 “소송과 관련 심리나 판결 일정을 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몫”이라며 “집행정지 소송의 특성상 최대한 시급하게 봐도 무리한 일정”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심리 직후 가처분인 용역면 대형마트측 휴업 휴무일(둘째·셋째주 일요일)인 오는 21일 광주지역 대형마트의 영업이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18희생자 지원 '장학재단' 생긴다

32년 만에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유공자들이 보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그러나 민주동우회는 지난 7월17일 광주광역시 보살심의위원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 6차 보상자로 선정된 회원 20명이 각자 받은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해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회원들이 모은 돈은 보상금과 개인 기부금 등을 합쳐 1억원 가까이 된다. 장학금은 5·18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사망했거나 강제 징입 등의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 본인 또는 가족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연필뉴스

박광태 전 시장 '상품권 갱' 수사 결과 반박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한 적 없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일명 상품권 갱)해 일부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16일 “검찰 수사결과가 왜곡됐다”며 검찰 발표를 반박했다. 박 전 시장은 이날 자료를 내고 “시장 재임 8년 동안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직접 보고 받은 바 없다”며 “특히 업무추진비를 직접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민주당 당비 4100만 원을 납부한 의혹에 대해 “2006년 7월께 특별 당비 약 70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별도의 당비를 낼 의무가 없었는데도 비서실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민주당에 당비를 납부한 것”이라며 “본인은 당비 납부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골프비용과 관련하여 “책임 기간 원활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20여 차례 시청 출입기자단과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아파트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시 아파트는 관사로서 시정업무를 위한 연속 선상의 업무공간이었다”며 “방문한 민원인들과 주요 인사의 접대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Joy Tour Co., Ltd.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Japan, Europe, and China, including prices and departure dates.